

### 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 신설 특성화 계획의 일환

정보통신분야 특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일반대학원에 정보통신공학과를 신설해 99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분야의 특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대 동문 5천만원 기탁

본교 한의대 동문들이 지난달 30일 총 5천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박현준(89층), 윤종영(86층) 동문이 각 1천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한 것을 비롯 모두 35명의 동문들이 참여했다.

### '제 27회 동국인의 밤' 열려 오는 17일 엠버서더 호텔에서

총동창회(회장=황명수)는 오는 17일 오후 7시 엠버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 27회 동국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축하패 수여, 새해 결의문 낭독 등을 2부에서는 장기 자랑, 행운권 추첨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 연습림·낙산학사 개방 1인당 1박2일에 1천5백원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연습림관리소(소장=오정수·산림자원학)가 처음으로 일반 학생들에게 개방된다.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2개월간 개방되는 연습림은 과나 동아리 단위로 15명부터 20명 내외의 학생들이 신청하면 1박2일 기준 1명당 1천5백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오늘(7일)부터 18일까지 해화관 4층 교내 연습림관리실(전화:260-3469)에서 받는다. 연습림관리소는 학교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리사는 방 2개(10평, 4평)와 강의실(12평)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는 넓은 산림과 계곡 등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동해안 낙산학사도 본교 재학생 10명 이상이 신청하면 1명당 1박 1천5백원에 이용할 수 있다. 문의는 관재과 후생복지계(전화:260-3081)으로 하면 된다.

### 알림

제1262호가 2학기 종강호입니다. 제1263호는 새해 첫날(1월1일) 발간됩니다. 한해동안 저희 동대신문을 아껴주시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통신투표' 둘러싼 정당성 논란

## 교수회 "총회 시·공간적 개념 확대"... 학교측 "직접·비밀 투표원칙 위배"

총장후보 추천선거를 통신투표로 치르겠다는 결정이 알려지자 투표방식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수회(회장=유덕기·생명자원경제학)는 지난달 27일 서울·경주 합동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이번 총장후보 추천선거를 통신투표를 통한 통신투표로 치를 것에 합의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오홍석·지리교육학)에 요구, 지난달 30일 교수회 선거위는 회의를 소집해 이를 의결했다. 이번 통신투표 결정과 관련해 교수회측은 "현 비상사태에서 관행대로 총회를 개최해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판단아래 총회의 시간적·공간적 개념을 확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수회측의 결정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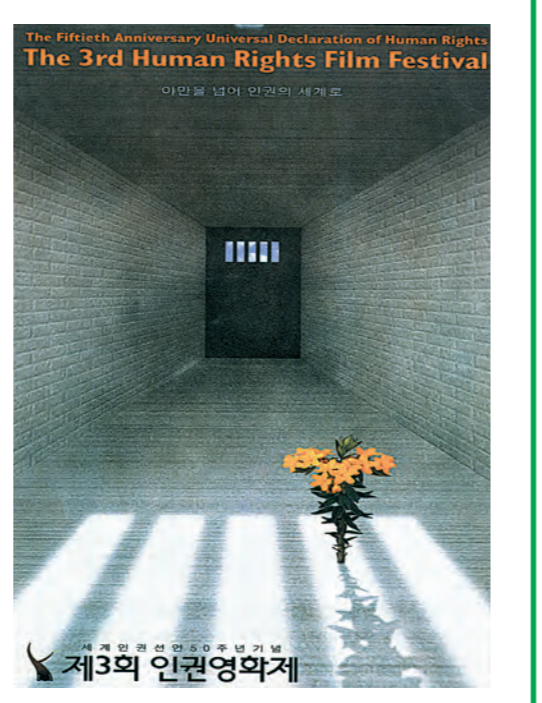
해 서울캠 단과대 학장 12명과 경주캠 교무위원들은 "직접·비밀 투표라는 원칙과 현재 교수회에서 진행중인 통신투표는 교수회 규정 제44조와 총장 후보추천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위배되며,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불법·부당한 것"이며 "검증절차 또한 보장되어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통신투표의 비공정성과 조작가능성을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지난 3일 정명섭(미술학) 선거위원은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위원직을 사퇴해 정당성 논란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총회를 통한 구체적인 선거 운영방법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발송=선거위원이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해 지난 1일부터 유



인권영화제...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를 모토로 한 제3회 인권영화제가 지난 5일 본교 학술문화관에서 개최됐다. 개막식에 앞서 제3세미나실에서 '5월광장 어머니들'을 관람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 제3회 인권영화제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오는 10일까지 문화관 예술극장·세미나실2에서

본교 총학생회와 인권운동사랑방 공동주최로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제3회 인권영화제가 오는 10일까지 개교 90주년기념 문화관 예술극장·세미나실2에서 개최된다.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라는 모토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의 영화 상영일정표는 다음과 같다.



12월 7일		12월 8일	
예술극장		1예술극장	
15:00	리카르도(90)	5월의 광장 어머니들(64)	
16:00	16:40 그 시간 다른 곳에선(52)	심포지움	
17:00	17:40 세계인권선언 날 놀이(96)		
18:00			
19:00	19:45 임국금지	세계인권선언 황무지(75)	
20:00		20:40 나눔(8)	
		평화가 찾아올 때(8)	
		철레전투 제2부(99)	
21:00	철레전투 제1부(106)		

12월 9일		12월 10일	
예술극장		세미나실 2	
15:00	세계인권선언 맥도날드 망신당하다(53)	임국금지	자본의 위기를 노동의 희망으로 1998 전진!!(37)
16:00	16:15 갈릴리에서의 결혼	16:20 한국인 B.C급 전범의 기록(62)	
17:00		17:30 끝없는 강제(6)	17:50 한낮의 별(93)
18:00	18:30 유토피아를 찾는 사람들	삼자기를 진 아이들(62)	
19:00		페막시	
21:00	철레전투 제3부(82)	19:30 철레 지을 수 없는 기억(58)	

## 산업기술연구소 3억원 지원받아 교육부, 첨단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서울캠 산업기술연구소(소장=이문보·건축공학)가 교육부의 '이·공계 대학 연구소 기자재 첨단화 지원사업'의 연구소로 선정돼 3년동안 지원혜택을 받으며 올해 1차로 3억원을 지원받는다. 대학의 연구여건 선진화를 통해 국내 연구·개발 능력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실시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국내 이·공계연구소 중 우수연구소를 선정해 첨단과학 연구

## 교수회, 지난 1일 이사장과 면담 총장선출로 인한 학내문제 관련

오복원 이사장과 유덕기(생명자원경제학) 교수회 총회장, 오출세(국문학) 경주캠 교수회장은 지난 1일 이사장실에서 1시간 20여분간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오복원 이사장은 "제14대 총장으로 송석규 현총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은 동국학원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으며, "교수회에서 추진 중인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는 허락된 바가 없으며 교수총회 자리 등에서 이미 교수직선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이사장이나 이사회, 그리고 학교에 대한 음해, 비방문건을 교수가 제자를 시켜 배포·부착시키는 행위에 대해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이런 문제에 교수회장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교수회측 대표인 유덕기 교수와 오출세 교수는 "10월부터 꾸준히 면담요청을 했었다. 이러한 학내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고, "이번 총장연임 결정으로 인해 교수직선제가 갖는 폐단으로 지적된 것보다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으며 구성원간의 갈등도 심화됐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과 관련해 교수회측은 "다소 입장차이는 있었으나 그동안 교수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해소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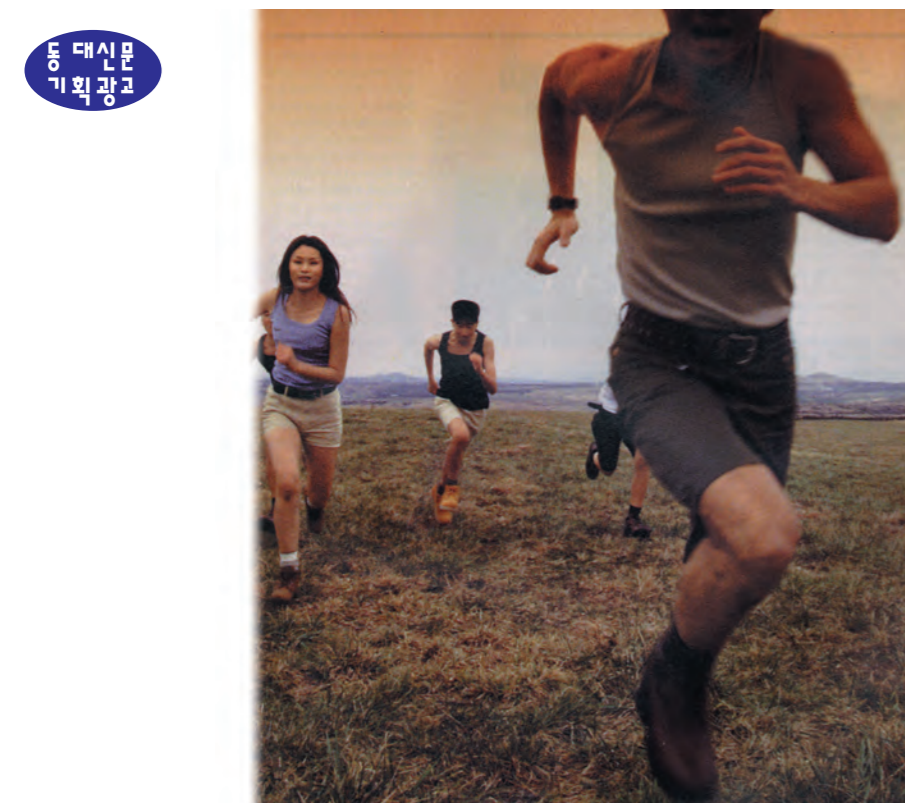
## 보리소

### 서산대사의 가르침

윤정광(불교방송 고승열전 작가) 서산대사(西山大師)는 '선가귀감'에서 일찍이 이렇게 한탄한 일이 있다. "출가하여 스님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라.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라,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며 명에나 재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나고 죽는 것을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삼계에서 뛰어나 중생을 건지려는 것이다. 이름과 재물을 따르는 남자(衲子)는 초야에 묻힌 아인만도 못하다. 제왕(帝王)의 자리도 침뽕고 설산에 들어가신 것은 부처님이 천분 나실지라도 바퀴지 앓을 법칙인데 말세에 양(羊)의 바탕에 범(虎)의 껍질을 쓴 무리들이 연치도 없이 비탈을 타고 세력에 휩쓸려 아침을 하고 잘 보려고만 애쓰니 아, 그 버릇을 어찌할 것인가! 마음이 세상 명리에 물든 사람은 권세의 문에 아부하다가 종전에 부대끼어 도리어 세속 사람들의 웃음거리만 되고 만다." 서산대사는 이렇게 한탄하고 경고하였지만, 오늘 한국의 불교계는 권력과 재물에 눈이 어두워 '달벼슬만도 못하다'는 '중벼슬'을 서로 차지하려고, 치사하고 더럽고 추악한 폭력을 휘두르는 일단의 '스님'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아, 참으로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성스러운 승복을 입은 분들 가운데 권력을 잡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은 오늘 당장 승복을 벗으시고 속죄한 뒤에 구의원(區議員), 군의원(郡議員)부터 출마를 해서 구청장도 하고, 군수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대통령까지도 해주시기를 바란다. 성스러운 승복을 입은 분들 가운데 돈을 왕창 벌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 분은 오늘 당장 승복을 벗으시고, 노점상부터 시작해서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재벌까지도 되어주시기를 바란다. 승복을 입고 권력을 탐하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 승복을 입고 재물을 탐하면 이 역시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 '승복입은 도적'이라 하였다.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자비롭게 살라. 퍼가지려 하지 말고 나눠주며 살라. 중생들에게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라. '스님'들이, 시정잡배들 보다는 더 추악하게 싸움을 하더니, 이것은 참으로 스님들이 펼쳐는 코미디가 아니겠는가!

## 교수동정

- ▲임호일(독문학) 교수=지난달 20일 한국 뷔너학회 취임직에 선출.
- ▲정길상(사회체육학) 교수=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공동연구에 참가.
- ▲김세근(불교이동학, 한일 교육학회 회장) 교수=지난 5일 대전 KAIST 연구소에서 한국 일본 교육학회 추계학술세미나 개최.
- ▲최규철(사회체육학) 교수=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제13회 방콕아시아 경기대회 레슬링 경기 연구원으로 파견.



# "급하다. 급해!"

동대 학술상·문학상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청년들이여, 문이 닫히기 전에 딱딱딱한 작품을 던져 봅시다.

제36회 동대 학술상 작품모집 △모집분야 : 인문과학상-본상 및 가작, 사회과학상-본상 및 가작, 자연과학상-본상 및 가작 △응모요령 : 3개 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응모자격 :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 1998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상 : 인문과학상-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사회과학상-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자연과학상-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심사위원 :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직과 함께 발표 △인상작 발표 : 1999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제13회 동대 문학상 작품모집 △모집분야 : 시부문-본상 및 장려상 소설부문-본상 및 장려상 평론부문-본상 및 장려상 △응모요령 : 시부문-3편 내외, 소설부문-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평론부문-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응모자격 :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 1998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상 : 시부문-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부문-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부문-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심사위원 :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직과 함께 발표 △인상작 발표 : 1999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서 문의바랍니다.



# 총학 이사장 면담 “원론적 대화 아쉬워”

## 지난 30일 이사장실에서 … 총학, 2차면담 요구·총장 면담은 연기

총학생회(회장=구준서·전자4)는 지난 30일 오전10시30분경 이사장실에서 오낙원 이사장과의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면담은 직지사료 예정되어 있었으나 오낙원 이사장이 이날 승려대회 관계로 서울로 올라옴에 따라 이사장실에서 면담을 갖게 된 것이다.

이 자리에 학생회측 대표로는 김호중(불교4)·성나현(응생3) 제31대 총학생회 정·부 학생회장 당선자들과 이선진(수교4) 사법대 학생

회장, 이종환(전산통계4) 야간강좌 총학생회장 등 모두 4명이 참가했으며, 송석구 현 총장의 재임결정 배경에 대한 연기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예정된 오낙원 이사장이 승려대회 참가 일정 때문에 40여분만에 끝마치게 됐다.

학생회측 대표들은 이날 면담과 관련해 “원론적 이야기에 그쳤으며, 시간이 짧아 일반적으로 이야기 들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따라서 학생회측은 이날 학교측에 이사장과의 재면담

을 요구했으며 학교측으로부터 “재단과 협의하여 최대한 노력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학생회측에서는 “현 학내 문제는 재단의 일방적 총장낙점이므로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14대 총장에 송석구 현총장의 연임을 결정할 배경에 대한 답변과 15대 총장 선출방식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한 후 총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지난 4일도 예

정됐던 송석구 총장과의 면담은 이사장과의 2차면담 후로 연기됐다.

한편, 학교측에서는 총장실 점거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약속했던 이월직립금 내역공개와 불교종합병원에 관한 자료를 지난 2일 학생회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번 자료에 대해 학생회측에서는 “자료가 전체적으로 형식적이고, 기존에 발표되었던 자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남대철 기자

### 정보매체센터 · 롬비니관 완공과 학내 공간문제

## 학생, 자치공간 확보기대… 학교, 강의공간 더 급하다

### 충분한 의견수렴 · 현실적 어려움 설명 · 양보등 노력 필요

연구 동아리 무역학 연구회와 경영학 연구회가 M203 강의실을 커튼으로 막아 나누어 쓰고 있으며 F·O·D·E는 신방과의와 마찰 끝에 사회교육원 세미나실을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의원실은 아예 손실된 상태이다. 그리고 사과대는 계열실과 단대실이 1/2로 축소되었으며 생활도서관의 일부를 정치학 연구회와 나눠쓰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사과대 학생회(회장=이종열·정의3)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정치학 연구회가 공간을 비워주길 요구하고 있고 정치학 연구회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학내 공간 문제와 이로 인한 재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롬비니관과 정보매체센터 완공은 학생들의 공간 확보에 대한 기대를 자어내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롬비니관으로 인해 생기는 기존 식당공간들과 정보매체센터의 공간활용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측에서는 “기본인간 잡혀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막아 나누어 쓰고 있다”라고 밝혀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다.

이제 롬비니관과 정보매체센터는 내년 3월이면 완공·개방될 것이다. 학생들은 이 두 건물이 강의환경과 자치공간에 대한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은 강의공간 확보에도 힘겨워하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속에서 각 주체간의 이해 연구회가 없다면 진행된다면 서로에 대한 불신이 보다 깊게 자리잡을 것이다.

내년 3월, 롬비니관과 정보매체센터에 대한 공간배정과 관련한 오해의 소지를 바지사 없는데만 학교측은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상황들을 이해시키고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며 학생들도 보다 냉정한 상황인식과 양보의 마덕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은진 기자

공개하도록 조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이제영(연영4) 감사국장은 “단위 평가서를 보면 각 단위 일꾼들이 고민하는 모습과 뭔가 하려는 모습은 모범적이지만 그만큼 활동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또, “현재 이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이제껏 학생회 사업이 1년 단위로 끊어져 왔던 것을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수강신청 9일부터 학외에서도 신청가능**

9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이 9일부터 11일까지 3일동안 치러진다. 이번 수강신청은 그동안 교내 컴퓨터실습실에서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학외에서도 신청가능하다.

희망자는 내일(8일)부터 11일까지 해학관 1층 정보관리처 상담실(260-3488)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서관 오늘(7일)부터 17일까지 철야개방**

도서관(관장=김병식·화학공학)은 기말고사기간인 오는 7일(월)부터 17일(목)까지 제3열람실을 철야개방하며 새벽 1시부터 5시까지의 출입이 통제된다.

**15대 대학원 총학생회 이석종·유진호조 출마 오는 8, 9일 투표 실시**

15대 대학원 총학생회 정·부후보로 이석종(임학 박사과정 1학기)·유진호(사회학 석사과정 2학기) 조가 '월우들과 함께 하는 새천년을 준비하는 희망공동체'라는 기치를 내걸고 단독 입후보했다. 투표는 내일(8일)부터 9일까지 이틀동안 치러지며 △90주년기념 학술관 지하 △동극관 로비 3층 △교수회관 △원흥관 △사법대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 총대, 하반기 결산감사결과 발표

### 사업·공약평가·자체평가 단위별 자료 공개키로

총대의원회 산하 중앙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신현찬·연영4)는 지난 2일 4개 중앙기구(총학·동원·졸준위·학복위), 11개 단과대에 대한 결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이제껏 시행된 적이 없고 감사기간이 선거기간이라는

일정상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체평가서와 공약평가서에 대해서만 실시됐다. 또, 이월시기와 징계등의 조치가 어렵고 징계를 내리는 것보다 올바른 평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각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평가서를 각각

## 동국발전기금소식

기간: '98. 10. 1-11. 30까지  
**발전기금/불교종합병원건립기금**  
**▲1천만원이상**  
 용곡대학 11, 200, 700원(합13, 875, 620) 김상구(건축토목공학부 교수)1천만원(합1천2백만원) 박민준(한의85졸, 박사과정)1천만원 윤종영(한의86졸, 박사과정)1천만원 한국R.F(우차관리업체)1천만원(합105, 000, 000원)  
**▲5백만원**  
 박정규(화학공학과교수)합23, 010, 000원) 조장대(국어국문학과 66졸, 소설가)  
**▲1백만원이상**  
 김태부(영어교수)3백만원(합5백만원) 신상규(한의 94졸, 한의원원장)2백만원 민인숙(한의95졸, 한의학과석사과정)2백만원 이원창(한의88졸, 한의학과석사과정)2백만원 주승균(한의학과석사과정)2백만원北진전생1, 120, 070원 일본불교대학1, 098, 490원(40, 063, 905원)  
**▲1백만원**  
 강수남(신도)1백만원 강중수(신도)1백만원 강호진(경영학과1973졸) 고한용(경영학과1995졸, 공인회계사) 광정권(신도)1백만원 구분수(신도)1백만원 구봉희(학부모, 구자홍의부)1백만원 권기상(신도)1백만원 권미영(신도, 평택중앙중등학교교사)1백만원 권승학보교제(신도)1백만원 권정오보교제(신도)1백만원 권학산(신도)1백만원 김경동(한의85졸) 김광수(신도, 평영엔지니어)김태표11백만원 김광진(한의89졸) 김진호(신도, 해대제과영업소대리)1백만원 김수성(한의87졸) 김수진(신도)1백만원 김승환(신도)1백만원 김영태(한의88졸) 김진기(신도)1백만원 김진현(신도)1백만원 김태은(신도)1백만원 김태호(신도)1백만원 김현수(한의89졸) 김형태(신도)1백만원 김효순(스님, 화은사원장)1백만원 김희준(한의87졸) 문만득(스님)1백만원 문복순(신도)1백만원 문상원(한의85졸) 박길원(신도)1백만원 박애자(경관, 금강사회복지관장)1백만원 박우재(신도)1백만원 박정이(신도, 중화발전재학업사)1백만원 박준호(신도)1백만원 박화순(신도)1백만원 배효진(신도)1백만원 서재영(신도)1백만원 서준은(한의88졸) 신현식(정치외교학과1961졸)1백만원 원영희(신도)1백만원 위동원(신도, 한국외환은행계장)1백만원 유기례(신도)1백만원 유성욱(신도)1백만원 유종관(신도)1백만원 윤미숙(신도)1백만원 윤병진(신도, 대한사주지)1백만원 이태원(신도)1백만원 이무형(한의85졸) 이분순(신도)1백만원 이상현(한의88졸) 이윤영(동학과1970졸, 신용보증기금지점장)1백만원 이태원(신도)1백만원 이한림(신도)1백만원 이화순(신도)1백만원 이효숙(신도, 삼성전자인원회계)1백만원 임인제1백만원 장희순(신도)1백만원 전미영(아해생부처 상담원)1백만원 정병훈(한의91졸) 정인재(한의86졸) 정우환(한의87졸) 정형구(신도)1백만원 조윤유(스님, 마하연주지)1백만원 최명석(신도)1백만원 최순기(불교대학원)1백만원 최재웅(신도)1백만원 최재진(한의85졸) 최효순(신도)1백만원 환근성(스님, 자은사)1백만원 한덕표(신도)1백만원 허평재(신도)1백만원 홍영선(신도)1백만원 황인만(한의88졸) 황정자(신도)1백만원

**1백만원 미만 기탁자 및 특정목적기금 기탁자 명단은 지면관계상 신년호(99년 1월1일자)에 실립니다**

## 학생증 변경 및 신청

Y2K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학번이 변경됨에 따라 캠퍼스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학생증을 구현하기 위하여 생활협동조합 및 은행과 협조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증을 개선합니다.

- 변경목적
  - 가. 학생증의 다기능화를 통한 학생들의 극대화
- 시행시기 : 1999년 3월
- 대상 :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 신입생(특수대학원 포함)
- 학생증의 기능
  - 가. 도서관 출입 및 도서대출·반납기능
  - 나. 교내복지시설 이용기능(식당 등)
  - 다. 현금 및 직불카드 기능(제일은행)
  - 라. 버스카드 기능(관련기관 협의진행 중)
  - 마. 지하철카드 기능(관련기관 제휴시)
  - 바. 기타 필요한 장비설치시 복사카드 및 각종 증명서 자동발급기능 이용가능
- 학생증 발급신청서 제출
  - 가. 대상 : 학부 재학생 및 99. 3월 복학생자 (단, 99. 2월 졸업 및 99. 3월 휴학예정자는 제외)
  - 나. 일시 : 99. 12. 9(수)~99. 12. 18(금)
  - 다. 교부장소 : 소속대학 교학과
  - 라. 제출서류 : 학생증 발급신청서(소정양식)·(사진 1매, 도장 필요)
  - 마. 제출방법 : 소속대학 교학과를 통하여 일괄 제출
- 분실시 재발급
  - 가. 절차: 아래 절차도에 따라 학생은 장학과에서 즉시 발급 및 수령. (현금카드 기능은 학생이 은행에서 별도 처리)

발급신청서 작성(중지부착포함) → 신청서 접수, 제작, 발급(즉시)  
 (학생본인) (장학과)

나. 비용: 5,000원 학생본인(사진 등 불포함)

7. 주의사항

가. 학생증은 기능이 다양하므로 권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현금카드 기능을 및 선불카드 기능 포함)

나. 학생증 발급신청서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간내 미 제출시 99. 3월 중순이후에 학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변경된 학생증은 99년 3월부터 도서관 및 시범운영성당(롬비니관)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학생처장

## 인턴희망자 모집

취업과에서는 노동부 시행 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턴희망자를 모집합니다

- 인턴사업성격 : 금번 시행될 인턴제는 노동부 시행지침에 의거 인턴희망자를 대학에서 모집하고, 대학에서는 대상 회사를 섭외하며, 대상회사가 요구하는 자격자를 인턴희망자중에서 파견하여 6개월동안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는 형태임
- 지원자격
  - 학부(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중 미취업자
  - 졸업후 군전역(예정)자 중 미취업자
  - 학부(7학기 이수) 및 대학원(3학기 이수) 휴학생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기타 이력 및 자격증 사본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본관 취업과
- 접수기간 : 98. 12. 7(월) ~ 98. 12. 18(금)
- 자세한 사항은 취업과로 문의 (260-3053, 4, 5)

## 학생처장

98학년도 동계방학 외국어교육원 특강								
구분	ENGLISH CONVERSATION						TOEIC	LISTENING
	BASIC	I		II		III		
1차	09:00-11:00	Paul Treadway (강의실 A)	Robert Burchel (강의실 B)	Bruce Dawson (L309)	Paul Sather (L310)	Eric Prochaska (LAB A)	Ross O' Connor (LAB B)	
	11:10-13:10	Paul Treadway (강의실 A)	Robert Burchel (강의실 B)	Bruce Dawson (L309)	Paul Sather (L310)	Eric Prochaska (LAB A)	Ross O' Connor (LAB B)	
2차	09:00-11:00	Angelika Gatoss (강의실 A)	Joseph Schowell (강의실 B)	Nicholas Garrison (L309)	Bridget McGrath (L310)	Troy Body (LAB A)	Irene Hanssen (LAB B)	
	11:10-13:10	Angelika Gatoss (강의실 A)	Joseph Schowell (강의실 B)	Nicholas Garrison (L309)	Bridget McGrath (L310)	Troy Body (LAB A)	Irene Hanssen (LAB B)	
수강료	50,000원						30,000원	40,000원
기간	1차 : 99.1.4~99.1. 22/ 2차 : 99.1.25~2.12(각 3주)							
접수처	외국어교육원(동국관 1동 2층)							
접수기간	1,2차: 98.12.1일부터(각 선택순 마감)							
외국어교육원								
TEL : 260-3470/1								

### 캠퍼스카드 도입

## “식당·버스이용을 학생증 하나로”

### 학생 편의 도모, 내년 3월부터 실시

눈앞에 다가온 21C에 알맞은 캠퍼스 카드가 도입된다. 밀레니엄 버그로 인해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내체계가 바뀌고 또, 여러해 동안 언급되어 온 학생증 개선요구에 맞게 학생증의 다기능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학생증 개선을 위해 장학과(과장=문옥래)에서 본교 재학생 7백2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과판수 이상이 1회 이상 재발급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증의 보관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증 개선에 대해서는 64.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개선 이유로는 기능의 부족함과 디자인의 낙후성, 훼손 가능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증에 부가하였으면 하는 기능에는 도서관 출입 및 대출기능, 복사카드기능, 증명서 자동발급기능이 80%를 넘는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현금카드기능, 지하철 카드기능, 교내복지시설 이용가능 순으로 응답했다. 재발급비용 5천원을 수용하겠다는 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7.1%가 수용하겠다고 대답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재발급비용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조합, 제일은행이 연계해 국내 최초로 IC카드를 이용한 최첨단 학교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기존 학생증은 단순한 도서관 출입 및 대출기능이 전부였으나, 이번에 도입되는 학생증은 RFIC(Radio Frquency IC)카드로 도서관 출입 및 대출은 물론이고 직불 및 현금카드 기능, 교내 식당 및 매점 이용기능이 있으며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도 확장기능이다. 교내복지시설이용 및 교통카드 기능은 교내에 설치될 충전소에서 충전해서 사용하게 되며 직불 및 현금카드 기능은 제일은행에 개설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분실시에는 장학과와 제일은행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신청이 교내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연결망에서 차단한다. 또한 학생증 기능 확대에 따라 분실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분실된 카드는 즉시 재발급되며, 카드안에 적립된 금액은 환불해 준다.

새로운 학생증 사용을 위한 제반 시설은 이번 겨울방학에 설치될 계획이며 오는 9일부터 18일 까지 소속대학 교학과에서 신청서 발급 및 접수를 받는다.

김진아 기자

## 학생회 선거소식

99학년도 각 과 학생회 정·부 학생회장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 불교대** 불교학부-손원익(1)·강수원(1) 조가 정·부 학생회장으로 당선.  
**문과대** 국민윤리학과- 최정식(3) 군이 학생회장으로 당선.  
**이과대** 물리학과-최영조(2) 군이 학생회장으로 당선.  
**사과대** 사과계열-오원기(1)·홍석균(1) 조가 정·부 학생회장으로 당선.  
**생자대** 식물자원학과-임철용(3) 군이 학생회장으로 당선.  
**응용생물학과-조영석(3) 군이 학생회장으로 당선.**  
**산림자원학과-황상호(2)·박지혜(2) 조가 정·부 학생회장으로 당선.**  
**사범대** 교육학과-유남훈(3)·임지영(1) 조가 정·부 학생회장으로 당선.  
**수학교육과-임은희(2)·함은희(2) 조가 정·부 학생회장으로 당선.**  
**지리교육과-김흥민(2)·김주희(2) 조가 정·부 학생회장으로 당선.**  
**역사교육과-김지영(2)·김근혜(2) 조가 정·부 학생회장으로 당선.**  
**이간강좌** 정보관리과-전성훈(3) 군이 학생회장으로 당선.  
**중어중문과-심완기(2)·박현태(2) 조가 정·부 학생회장으로 당선.**  
**정보통신과-백인엽(2) 군이 학생회장으로 당선.**  
**경영학과-정재수(3)·신순하(2) 조가 정·부 학생회장으로 당선.**  
**신문방송학과-신상현(2)·윤경숙(2) 조가 정·부 학생회장으로 당선.**  
**무역학과-조동기(3) 군이 학생회장으로 당선.**  
**북한학과-문주식(3)·김지연(1) 조가 정·부 학생회장으로 당선.**

## 회전무대

### 복사방?

○…다항관에서 불법복제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는데. 알아본즉, 다항관에 있는 한 잡화점에서 CD를 복사해주는 일을 해 많은 학생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더구나 불법으로 복사를 해주는 곳은 버젓이 “CD카피합니다”라는 광고문을 여겨지지 붙여놓기까지 하였으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월, “불법복제현장, 그 이름은 카피카피 룸~룸, 카피카피 룸룸!”

### 공초의 끝발!!

○…“조그만 불씨하나, 동대삼간다 태운다!”

건조한 날씨로 바짝 마른 잔디밭 위에서 용감하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들이 함부로 버리는 담배꽂초로 도서관 근처 잔디밭과 다항관 들개단 주위는 화재위험에 처해 있다고. 실제로 불씨가 채 꺼지지 않은 꽂초로 들개단가 잔디 일부가 태워졌으니.

이에 지나가는 학생 월 “꽂초 버리고 돌아서는 사람,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 양심 수리!

○…때마다 돌아오는 컨닝! 2학기 기말고사 기간 중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보다 더 바쁘게 머리쓰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알아본즉, 시험공부에 열중하기보다 좀더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컨닝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성실하게 수업 듣고 밤새워 공부한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안드는지, 이에 본 회전문대자 한마디, “어디 양심불량 애프터 서비스 해주는데 없나요?”

### 슬픈 현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법(?) 동아리 및 과행사를 알리는 자보들이 날짜가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때어 지는가 하면 그 위에다 자기 자보를 덧붙이는 양떼족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대학포화인 자보문화가 계시관으로만 한정된 현실에서 학생들은 타인의 자보를 아끼는 자제가 무엇보다 강조되니. 이에 회전문대자 월 “어려울 때 일수록(자보를) 서로 아끼고, 나누는 것이 힘이 됩니다!”

## 99학년도 전과시행 안내

- 전과 대상학부(부) : 원칙상 계열제원없이 전과(부)
- 제한학과
  - 가. 경찰행정학과로의 전과
  - 나. 캠퍼스간 전과
  - 다. 야간에서 주간학과로의 전과
  - 라. 한의(예)과, 의학(예)과로의 전과
- 지원자격 : 1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총점치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전과예정자
- 전과신청 : 신청자 소속학과(학) 학업지도교수와 학장의 동의를 받아 전과 희망 학과의 소속대학 교학과에 신청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1) 재학중인 2학년 전과예정자: 98. 12. 14(월) ~16(수)
  - 2) 99년 3월 2학년 복학(재입학): 99. 2. 23(월)~24(화)
  - 3) 면접전형 : 99. 2. 25예정(학과별 일정 추후 확정)
  - 4) 전과허가(학정·공고): 99. 3. 3(수)
- 구비서류
  - 가. 전과서적
  - 나. 재학(적)증명서
  - 다. 성적증명서(복학예정자에 한 함)
  - 라. 자기소개서 및 학업이수계획서
- 전형료(예체능계열) : 일금삼만원정(W30,000)
  - \*유의사항: 전과를 한 학생은 반드시 등록을 마칠것

## 교무처장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7년과 통일 논단

국회비준 통해 통일의 물꼬 트자

남북합의서는 소중한 약속

"7·4 남북공동성명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서문)

일찍이 남과 북은 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하여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대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 곧바로 유신체제가 수립되면서 통일에 대한 부푼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지만 그나마 남북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의 대전제를 일구어낸 것은 큰 성과였던 것이다.

우리는 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러한 노력이 다시한번 이루어지는 감격을 맛보았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합의서)가 전 민족의 박수 속에 채택되어진 것이다. 1년 3개월 동안의 오랜 논의 끝에 남과 북은 전문,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수정 및 발효 등 총 4장 25조로 구성된 약

속에 도달하였다. 이어 92년에는 그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3개의 부속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 합의서는 그야말로 민족이 통일에 이르기까지 수행해야 할 과도기적단계의 모든 조처들이 담겨져 있다.

남북합의서 이행, 산 넘어 산

남북합의서가 채택된 지 어언 7년이 되었다. 통일로 가는 길에서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남북합의서는 어느새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은 남북합의서는 '죽은 자식'이라 하고 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

우선,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해서는 정권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와 상충되는 각종 반통일적인 제도와 법률의 정비가 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러한 상황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합의서는 헌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조약이 아니라 남북 사이에 성의있는 이행을 약속하고 있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변란할 목적으로 대남적화 활동을 하여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되는 것은 남북합의서의 채택과 별개의 문제이다" (92년 4

월 9일 대통령비서실에 접수한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공개질의서에 대한 법무부장관 명의의 답변 내용 중에서)

아니 반국가단체와 신사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다는 이야기인가? 이것이야말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가?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 기류 속에서 남과 북의 행정부 책임자가 서명한 남북합의서를 국회에서 비준하지 않았다는 것은 역대정권이 합의서 이행에 대한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냉전의 틀에 얽매어 있었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당연히 국민의 정부가 남북합의서를 이행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남북합의서는 이러한 역대 정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관계로 인해 시련을 겪어왔다. 특히, 93-94년 북한의 핵사찰을 둘러싼 긴장격화와 김일성 주석의 사망에 따른 조문논쟁은 남북합의서 이행이라는 문제를 꺼내기에는 너무나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국회비준 통해 통일을 국시로

모처럼 남북관계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남쪽 사람들이 둘러보고 있다. 이러한 순풍이 남북관계 전반으로 확산되기



한 충 북 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위해서는 남북합의서의 국회비준이 시급하다. 합의서 국회비준은 그 자체로서 통일을 국시로 확정하는 것이며, 그 정신을 법률화하는 것으로 이와 상충되는 각종 법률과 제도,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은 필연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그 결과 관광객의 교류를 넘어 학술, 문화, 종교, 체육 등 다방면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며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통일에 있어 관의 역할만이 아니라 민의 역할이 증대됨으로써 진정한 통일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세계화라는 물결이 넘실거리는 현 시점에서 자칫 강대국의 이익에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좌지우지될 소지가 높다. 따라서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 자주통일국가를 세우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를 통한 통일된 민족의 번영과 희망의 세기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설

교수회의 통신투표를 바라보며

지금 동약에서는 희안한 광경을 보게된다. 교수회가 9일 예정된 총장후보선출 선거에서 기존 관행에 따른 총회를 통한 비밀·직접투표대신에 통신총회에 의한 통신투표라는 방식을 채택했다.

통신투표라 하면 극단적인 선거절차로 정식선거절차를 도저히 치를 수 없을 경우나 시행하는 제도이다. 그만큼 내부여건이나 외부여건이 매우 나쁜 경우에 쓰는 일종의 변칙투표인 셈이다. 예전, 한총련 대의원들이 정부의 검거를 피해 변칙적으로 '통신투표'라는 방식을 사용한 적이 있다. 이는 공안탄압이라는 암울한 현실로 인한 것으로 어느 정도, 그 적법성을 떠나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교수회도 이번 통신투표의 시행배경에 대해 학교측의 선거방해에 대한 최선의 대응방식이라 밝혔지만 그 양상은 사뭇 다르다. 과연 지금 상황이 적법성을 떠날 정도로 급박한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지금까지 부러졌던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재고해 보

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수회나 학교당국의 의식있는 행동을 요구했고, 그에 따른 대화와 적법한 절차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재단의 총장낙점 이후, 40여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심한 상호비방과 폭로전으로 얼룩진 것이 현실일 따름이다. 의사소통의 공간이 닫혀진 채 한발의 양보없이 반박과 혼란만 가중돼 온 것이다.

이는 교수회만의 변칙적이고 독단적인 모습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학이 가지는 소통공간이 닫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우리의 자화상일 뿐이다. 처음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구성원의 합의없던 재단의 총장낙점부터 시작해 교수회의 통신투표까지.

요컨대, 지금 중요한 문제는 모든 구성원의 바람을 합의와 대화로 조화시키는 것 뿐 아니라, 각급의 소통공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대학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수사회에서조차 제대로된 소통공간을 찾지 못해 변칙을 쓴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98학년도 학생회 탄압 진단

국보법 미명아래 희생되는 학생회 진보의 목소리 수용하는 정부 자세 필요

"반국가 세력에 찬양·고무·동조하는 자는 처벌대상이다"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의 내용이다. 지난 1일은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50년동안 양지와 음지에서 국가보안법이란 미명아래 희생된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올해 인권 대통령이라 불리우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으나 과거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국가보안법의 희생자 중에서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 가장 많은 탄압을 받은 집단일 것이다. 현재 98학년도 6기 한총련은 지난 5월 29일 서울대에서 출범식을 개최한 상태이다. 한총련은 당초 30일이나 31일, 한양대에서 출범식을 열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 방침 이후 대회 장소와 날짜를 갑자기 변경했다. 여기에 기성·보수언론에서는 '기습적', '강행'이라는 단어로 한총련의 출범식 자체를 매도했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대회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에서 의도적인 행사변경은 당시 정황을 살펴봐

을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본교 서울캠의 경우는 한총련 대의원이란 이유로 구준서 총학생회장과 이미성 부총학생회장이 현재 수배중에 있다. 또한 경주캠의 경우는 조해동 인문대학생회장, 이진혁 상경대학생회장, 정재훈군, 류성훈군이 국가보안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상태이다.

이진혁군은 지난 9월 23일 새벽 1시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됐다. 정재훈군과 류성훈군은 조해동군의 연행을 저지하려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됐으며, 지난 9월 30일 조해동군은 보안수사대에 자수했다. 타대학 학생회 탄압의 사례중 계명대의 박정권 부총학생회장, 박경일 인문대학생회장, 윤상민 사회대학생회장도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돼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보안수사대의 인권탄압의 한 예로 박정권 부총학생회장이 보안수사대의 봉고차로 연행될 당시 뒤따라 가던 몇몇 학생들에게 "따라오면 쏠겠다"고 협박하는



등 학생들에게 공포탄을 쏘기도 했다.

각 대학 학생회는 현재 99년 한해도 지속될 탄압속에서 7기 한총련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각대학의 총학생회 선거입후보자가 한총련 노선을 지지하거나 새로운 7기 한총련 조직을 구성할 경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 전원 구속·수사한다는 발표를 해 아직 구성도 안된 학생회 대표자들이 국가보안법상 준수배대상 인물에 올라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학생회에 대한 탄압은 98년

에 비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99학생회 선거결과 정파를 떠나 운동권 성향을 가진 총학생회가 전체 대학의 60%를 넘는 데서 짐작할 수 있는 결과이다.

현시점에서 학생들과 정부의 마찰을 줄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 현 정권의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양심수였다는 과거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진보적인 목소리를 경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박양우 기자

일련의 조계종 사태에 즈음하여

불교계 최대 종파인 조계종이 내용을 겪고 있다.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불국정도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된 무자비한 폭력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는 불교종단대학에 몸담고 있는 동국인들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12일에 실시하기로 했던 제29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비롯됐다. 전 총무원장 측과 선거 시기와 맞물려 출범한 정화개혁회의 측과의 일각다툼에 의해 총무원장 선거가 지연되고 있다.

더 이상의 내분과 그에 따른 폭력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사회에서 불교가 지켜왔던 위상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사태 수습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서로 비방하고 유폐는 소모전은 지양하고 대화의 자리를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를 선출하

고 불교 개혁의 바랍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중생활이 갈수록 파탄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종교의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신자(信者)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용기를 북돋아줘야 하는 것은 종교인들의 몫이다. 지금과 같이 권력다툼에 의한 조계종의 내분이 계속된다면 누구에게도 이로울 게 없다.

4년전에 겪었던 내분사태가 재현되어서는 안된다. 진정한 불교개혁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이제까지 쌓아온 청정승가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종단개혁의 결실들을 이번사태를 원만히 수습하지 못함으로써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실추된 불교계의 위상과 불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린다면 자신을 연마하여 깨달음을 성취하는 종교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길 바란다. 또한,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양측 모두 상대방과의 이해의 폭을 좁히기 위한 대화의 창구를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동약로



# 김대중정부 1년 평가(통일, 인권, 노동) 좌담회

##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 기대속 정권교체 불구, 실망커...“자주적 정책 수행 돼야”

#### 입시 설명회

지난 4일 오후 3시 경주교육문화회관 거문고 홀에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한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경주캠퍼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편안히 쉬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입학과정의 말과 함께 ‘고교진학유입 교사 입시설명회’가 시작된다.

이날 행사는 포항, 경주, 울산 지역의 교사 50여명과 경주캠퍼스 부총장을 비롯한 교수 및 관련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학교측의 구체적인 설명방식으로 행사가 계속 진행되는동안 교사들은 앞에 놓인 입시자료와 서로의 얼굴을 맞대며 쳐다볼 뿐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는다.

2시간 가량의 설명회가 끝나고 식사시간에는 “오랜만에 뵙네요. 한잔 하시지요”라며 잔을 부딪히며 서로 구면인 듯 인사를 하는 교사, 서로 명함을 주고받는 교사 등이 눈에 띈다.

설명회가 끝난 뒤 입학과정은 “예년에는 경주지역만 실시했는데 올해는 인근지역까지 확대시켰으며, 경주캠퍼스에서 진학유입교사를 위해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른 것이 처음임에도 괜찮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며 흐뭇해 한다.

그러나, “설명회를 듣는다고 해서 학생들의 진학 지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단지 참조하기 위해 오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한 일선교사와 “울산 같은 지역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서블비스 운영 등 실질적인 문제들인데 설명회에서 이런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주길 기대했었습니다”는 의견을 내는 또 다른 진학유입교사들.

또, 한 교사는 “경주캠퍼스 말고도 여러대학의 초청으로 이런자리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똑같이 대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특정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있었습니까?”라고 고개를 흔들며 보인다. “지금같은 때는 전통국인이 하나가 되어 입시홍보에 힘써야 한다”며 호소하는 입학과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무엇보다 예산부족이 홍보활동을 하기에 가장 큰 문제”라며 고개를 떨군다. 설명회를 마치고 교사들 간에 서로 주고 받는 대화에서 앞으로 현실적인 대안 없이 형식적인 홍보에만 그친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에 씁쓸하기만 하다.

황성규 기자

사회자: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해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김대중정부의 1년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사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권교체의 의미를 바탕으로 한 현정부의 1년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규: 정권교체는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표출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지역간의 권력을 교체시킨 것이고, ‘패배에 대한 관심’을 해소시키면서 ‘승리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미 실직자가 3백만을 넘어가고 있으며, 양심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임시방편적 대안과 무관심적 태도로 인해 정권초기의 국민들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박복찬: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50년만의 정권교체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IMF를 철저히 신봉하고 있으며 재벌과 기득권 세력은 아직도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현정권 또한 지난 문민의 정부와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노동자의 입장에서 대선 당시의 공약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김세규: 50년만의 정권교체는 민심이 ‘개인 김대중’을 선택했다기보다는 1당 독재체제에 대한 염증이 폭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현정부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의 논리인 IMF를 비롯한 미국의 예측하에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통일에 있어서도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정권

교체에서 기대에 부응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현정부 출범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민중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순수한 방북취재는 불허가 됐고, 수많은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아직도 양심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전대기련이나 현대중기노조 그리고 조계사 농성단에서 진행해 온 활동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김세규: 전대기련은 지난 학기부터 2천 기자들의 결의를 모아 방북취재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지난 1학기에는 중앙차원에서 8월 방북을 목표로 준비를 했었고 2학기에는 각 신문사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끝내 불허를 했습니다. 대학신문기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일 운동의 방법이 바로 방북취재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는 우리 대학생들의 ‘순수성’까지 의심하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남한의 사람들이 금강산도 가는 이시기에 우리 대학생들도 언젠가는 관문점을 넘어서 북녘 땅에 갈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창규: 지난 8월9일부터 시작된 조계사농성은 크게 대중조직사업, 언론사업, 정치권과의 협상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지금까지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미 세 번의 대중 집회와 문화제, 전국 40여개 대학에서의 후원회 조직, 수가협과 같은 부모님들의 활동 등과 각 대학신문사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와 국회의원회의의 인권위와 홍근수 목사님, 진관 스님, 함세웅 신부님 등이 나서서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2월에는 양심수 문제 해결과 국가보안법 철폐, 정치수배해제와 양심수들의 군문제 해결을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갑니다.

박복찬: 현대중기 노조는 지난 6월 18일에 있었던 55개 기업 퇴출 이후 오늘(4일)까지 1백57일째 농성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중기와 같은 경우 55개 기업중 유일하게 흑자를 내오던 기업이었

고 또한 유일하게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노조는 현재 현대중기의 최대주주인 현대건설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고 있으며 노동부 또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사회자: 각각 통일, 인권,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대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정권초기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왔었던 것에 비하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정부의 각각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복찬: 현정부는 지난 대선 이후 곧바로 노사정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고 노동분야의 일을 다루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정리해고의 법제화 등의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사정위원회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그야말로 ‘탁상 집론’의 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정부의 노동정책은 실업자, 해고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해고에 따른 대책이 따로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니 참 답답합니다. 이후에는 대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또 다른 수많은 노동자가 정리해고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좀더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확실한 사회복지 마련이 필요 할 것입니다.

김세규: 현 김대중 정부이후 남북관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남한 사람들이 금강산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만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교류협력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선별적 교류’에 머무르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이른바 ‘햇볕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북한 사회를 붕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에서 내걸고 있는 정책과 별반 다를게 없으며 최근 논의의 진전을 거듭해 온 연방제 통일과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오창규: 지난 1년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실망이 금치 못한다는 말로 현 정부의 인권정책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난 3·13과 8·15 사면 때에도 보았듯이 이 땅의

일시: 1998년 12월 4일 오전 10시  
장소: 조계사 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사무실  
참석자: 노동분야- 박복찬 현대중기산업 노동조합 위원장  
인권분야- 오창규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농성단 단장  
통일분야- 김세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의장(경기대학보사 편집국장)  
사회자: 본사 유철주 기자

양심수는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학살자들과 한보비리 관계자들, 경제 파탄 주범들은 풀려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인권상을 받고 온 것을 보면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를 느끼는 다.

사회자: 각각 분야에 대한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별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통일사업과 계속되고 있는 노동운동 탄압, 인권정책의 부실함 등은 시급히 고쳐야 할 것들로 지적됩니다. 그렇다면 이후 현 정부에서 추진해야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오창규: 기본적인 문제부터 말씀드리다면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고 준비서약서는 폐지, 정치수배해제와 양심수들의 군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국가인권위’라는 것도 좀 더 독립적이고 기능이 강화된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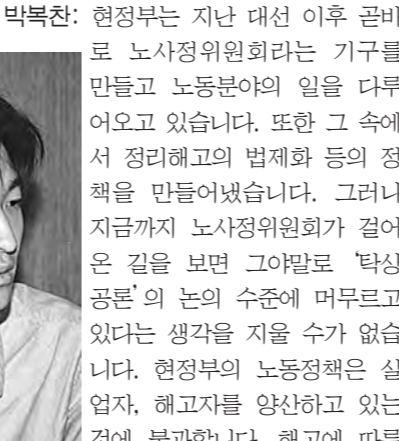
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결될 때 현정부는 보다 옳은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세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정말로 현정부는 민중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중자주’라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고 보다 민중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남북합의서를 이행해야 할 것이며, 주한미군을 철거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해결될 때 자주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박복찬: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IMF와 재벌상을 벌여내야 합니다. 노사정위원회 또한 형식적 기구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고통을 전담해서는 안되며,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제 김대중 정부가 더 이상 노동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 국민의 정부가 보다 민중적이고 민주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현재까지 많은 민중들이 진행해왔던 투쟁들을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실을 이루어 내면 좋겠습니다.

정리= 사회부



참석자들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사무실에서 통일, 인권, 노동부문에 대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98년 학내는 굵직굵직한 사건들로 그 어 느때보다 소란스러웠다. 교수·직원·학생 너나 할 것 없이 '동국발전'을 부르짖게 한 4가지 학내문제를 정리해본다. 편집자

# 진정한 동국발전을 위하여

## 총장연임결정

### 법인의 총장연임결정으로 진통

#### 동국발전위해 조속한 해결 필요

지난 10월 22일, 재단이사회는 현 송석구 총장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학내 주체들이 '재단의 일방적 총장낙임 전면 무효화'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으나, 사전발생 한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내 주체들은 연대의 방향을 모색했지만 연대투쟁을 벌이지는 못했다. 재단의 일방적인 총장재선임 결정을 반대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궤를 같이하면서도 총장선출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교수회는 기존 12·13대 총장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수회칙에 따른 교수직선제를 주장했고, 직원노조와 학생회측에서는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추천위형식의 총장선출방식을 제안했다. 결국, 이들은 의견조율에 실패하고 각각 독자적인 싸움을 벌여오고 있다.

현재 교수회는 4명의 후보가 등록한 가운데 교수직선제를 강행, 선거 당선자 2명중 한명이 반드시 차기 총장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아래 강력히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직원노조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규정을 제정할 것과 불교종합병원, 제3캠퍼스건립의 재원확보방안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캠 총학생회측도 현재 총장실 점거해제 조건으로 약속받은 이사장 면담을 통해 총장선출문제에 대한 이사장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한 후 재단의 총장 낙임 무효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총장선출과 관련, 모든 동국인들은 동국의 발전을 위해 이 사태가 하루빨리 매듭지어지길 바라고 있으나, 갈등국면은 쉽게 해결 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오랜 싸움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각 구성원들과 학교당국, 법인은 인신 공격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방 등 '대학'이라는 이름에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동국의 지난한 역사를 통해 '학교가 시끄러우면 결코 도약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21세기가 코앞에 놓여있는 지금, 무엇이 동국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경쟁의 바다에서 합한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에 임하는 분명하다. 남대철 기자

## 제3캠퍼스·불교종합병원 건립

### 건립취지 동의 불구 예산확보 문제제기

#### 정부 재원조달·병원건립후 제3캠퍼스 조성으로 재정부담 축소

98년 동약을 뜨겁게 달구었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제3캠퍼스와 불교종합병원 건립문제이다. 이 사안은 향후 본교의 발전을 좌우하는 것으로 학내 전 구성원들의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현재에도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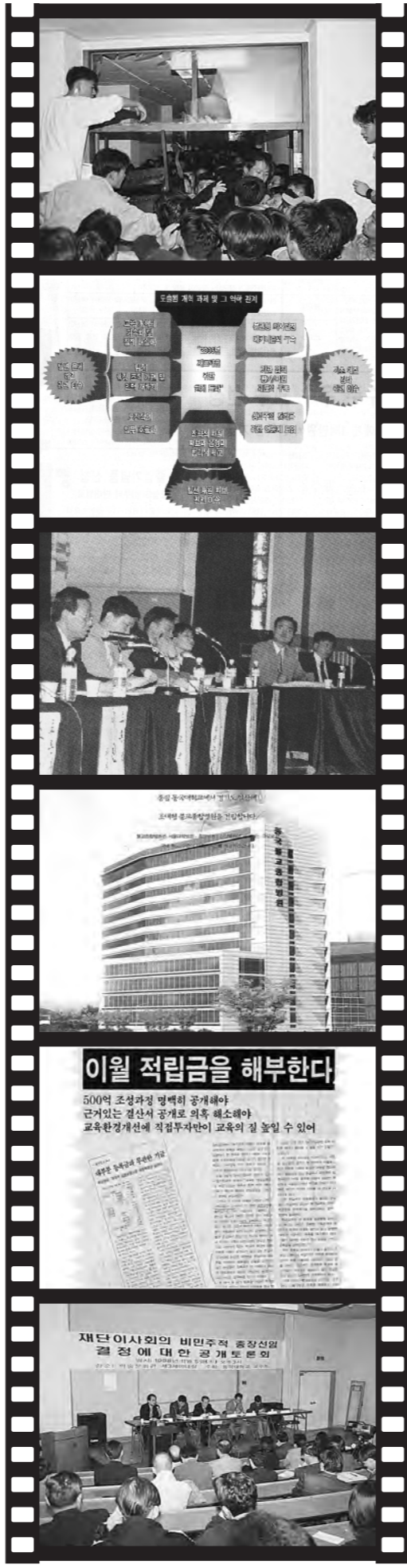
지난 94년 동국학원 이사회의 승인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불교종합병원과 제3캠퍼스 건립은 △불교의 자비정신 실천 △중립대학으로서 불교인의 심신 안식처 제공 △한방 협진을 통한 독자적 의료체제 확보 △의학계열 수도권지역 확보로서 우수학생 유치 및 우수의료인 양성 △의료활동을 통한 사회봉사 등의 필요성과 함께 "불교 선각자들의 위대한 뜻을 새롭게 이어 받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모든 불교도의 염원인 양, 한방불교 종합병원을 수도권에 건립하여 한 차원 높은 동국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18일 교양시로부터 건축허가가 난 이후, 서울캠과 경주캠에서의 설명회를 거쳐 5월 16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현재는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설

계입안 작업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기공식을 전후해 교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등의 학내 제 주체들은 △재정확보 계획 △건립일정 △경역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기본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총학생회에서도 학생들이 보다 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공개질의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목적의 행사나 사업이라도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이 공유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열린 행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불교종합병원과 제3캠퍼스의 건립은 '동국발전'이라는 큰 틀을 갖추기 위한 기본조건임에 의견을 달리하는 동국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 구성원들의 동의와 공유가 없다면 '동국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학교당국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철주 기자



## 구조조정

### 구조조정안 실행화 작업 진행중

#### 학내주체 합의 속 진정한 동국발전 모색해야

9월 한달 동안 '뜨거운 감자'로 군림했던 구조조정안은 현재 실무추진팀이 꾸려져 본격적인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 완성된 최종보고안을 본교의 현실을 고려해 수용하려는 작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LG경영진단팀의 구조조정안은 △팀형 행정조직 개편 및 인력재배치 △행정업무 효율화 △기관업적 평가/지원제도 △직원인사 평가제도 △교직원 급여체계의 재설계 등 크게 5가지로 나뉘며 이 중 기관별 업적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이 대학구조조정의 첫 걸음으로 강조됐다.

구조조정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조직에 있어 종래 피라미드식의 계층구조를 관리자층 축소·실무담당자 증대로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는 이른바 '팀제', 교직원 급여체계에 있어 과거 연공(年功)급여가 아닌 평가를 바탕으로 한 직능급여 및 업적급여를 추구하는 이른바 '연봉제', 업적평가에 있어서 '했느냐, 안했느냐'가 아닌 '잘 했느냐, 못 했느냐'인 MBO시스템 등이 있다.

그러나 LG의 구조조정안은 지나치게 행정분야에

치우쳐 교육·연구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팀제나 연봉제 등 기업경영논리가 접목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LG경영진단팀의 구조조정안 실행화 작업은 이와 같은 학내 주체들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26일 열린 정기노사협의회에서 직원노조(위원장=백경선)측은 팀제나 연봉제 시행에 앞서 노조측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합을 주장했고, 학교측은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연봉제는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교 구조조정에 있어 그동안 설명회와 공청회 등이 열리긴 했지만, 학내 주체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진정한 개혁은 주체들의 합의와 참여 속에서 가능하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건학이념에 어긋나지 않게 본교 나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미경 기자

## 이월적립금

### 교육환경 개선 위한 직접투자 시급

#### 학생회, 적립금 투명성 강조 ... 향후 사용방안 공개해야

5백여 이월적립금 진상규명 및 조성과정에 대한 서울캠 총학생회(회장=구준서·전자공4)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회측은 내년 등록금 인하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학교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 9월 불거지기 시작한 이월적립금은 학교측이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이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었다. 결국 학교당국은 본지 11월 2일자에서 '학교기금 적립현황'이라는 자료와 함께 학교측의 입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개한 내역항목중 건축기금 2백46억원은 등록금과 무관한 재단 전입금으로 법안에서 50억원, 병원수입에서 1백90억원이 들어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 연구기금으로 59억여원, 장학기금과 퇴직금이 학교비에서 적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생회측은 △공개된 자료만 가지고서는 이월적립금의 투명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 △매년 본교에 1백억원씩 들어오는 전입금이 쓰이지 않고 모여져 왔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과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 학교를 운영하고 투자한 돈의

출처는 학생들의 등록금이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총장실 점거농성 중이던 학생회는 이사장 및 총장과의 면담을 조건으로 11월 28일 총장실 점거를 해제하면서 이월적립금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고, 지난 2일 학교측에서 학생회 측으로 이와 관련한 자료를 보내왔으나 학생회측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향후 학생회는 방중에 다른 사립학교들의 문제를 알아보고 여러 가지 근거자료들을 준비해 개강과 동시에 학생들과 학교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학생회는 "학교측에서 밝힌 불교종합병원 재정확보방안에 이월적립금의 건축기금을 사용할 계획이 들어있다"며 "건축기금 안에 등록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학생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이다. 따라서 학교당국은 투자내용에 대한 폭넓은 여론수렴 작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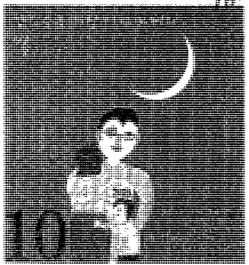
김진아 기자

### 자아인식

#### 학교 밖에서

#####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세계 인권 선언 50주년을 맞이해 인권의 달 12월에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개최한다. 민주화 실천가족은 동협회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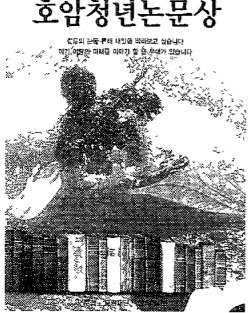
한양대 총학생회 주최, 한겨레신문사와 기독교방송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10년째를 맞아 세계에서 가장 오래도록 지속된 인권 공연으로 기록된다. 전세계의 공동과제인 인권회복을 위하여, 전 인류의 공동목표인 인권실현을 위하여 만들어진 이 행사를 통해 양심수 문제를 비롯한 한국의 인권 현실을 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훈·박은옥, 안지화과 자유, 문성근, 박노해, 꽃다지 등 10년동안 출연했던 가수, 배우, 시인들이 총 출연할 예정. 오는 12월 오후 6시 장충체육관에서 문의 763-2606

##### 동물원 겨울콘서트

7집앨범 '동물원에 가고 싶다'를 발표한 그룹 동물원이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동물원 특유의 연인들이 다양한 음악 장르와 결합하여 기존의 포크 일본도 음악에서 펑크, 뉴에이지, 컨츄리 등의 음악이 적절히 배합되어 그 모든 조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콘서트는 98년을 힘겹게 살아낸 많은 사람들을 위한 '나정하'도 비롯한 겨울나기'에 걸맞은 무대라고.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곤이아트홀에서 문의 및 예약335-7513

##### 호암재단

과 중앙일보 주최 제 2회 호암청년 논문상에서 2천대 한국 지식(정치, 경제, 사회, 과학)의 수. 문화, 남북관계 등 각각의 측면에서 -부제는 논문작성자가 임의로 정함)의 주제 논문을 공모한다.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소지자로 대학(원)생, 직장인, 일반인 등 35세 미인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워드프로세서 이용, 명조체, 글자크기 12포인트 2. 2백자 원고지 1백20장, 참고문헌 및 부록은 매수제한과 별도 3. 구성은 논문표지, 본문, 참고문헌 및 부록 순이며 논문내용 요약물 2-3페이지 작성하여 별첨 4. 논문 원본 1부와 3.5인치 디스켓을 함께 제출.
- 98년 3월 31일까지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50 삼성생명빌딩 16층 호암재단 사무국 문의 259-7865

##### 토요문화행사

한국시문화회관은 매주 토요일 주요작가들과 함께 독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12월의 초대손님으로는 정현종 시인과 박완서 소설가이며 행사는 작품감상과 작가의 말 독자들과의 대화 등으로 꾸며진다. 참가비는 5천원. 오는 12월19일 오후 7시 한국시문화회관 내 문화카페 포럼하우스에서 문의 764-6352

#### 전대기권 문화분과 대표에게 듣는 98년 문화정세

#### “진정 자유로운 문화예술을 꿈꾸고 싶다”

## 나무는 모두 씨앗을 남긴다


### 달하나 천강에 달

혹자는 말한다. 동국은 이미 고목나무가 되었다. 고목나무에서 짙은 돌을 리 없다 한다. 고목나무에서는 꽃 필 일이 없다고들 한다. 맞는 말이다. 물을 뿜어 울릴 물관도 이미 말라 버렸고 광합성을 해야 할 잎도 사들여 버렸다고들 한다. 옳은 말이다. 한 해가 다 저무는 캄퍼스를 보

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은 씨앗을 심어 놓는다. 새에게 먹히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바람에 씻겨 가기도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따사로우 그 밑에 제 씨앗만은 남겨 놓기 마련이다. 그것을 난 믿는다. 우리 동국이 문을 얻지도 어떤 백년이 되어 간다. 생각해 보라 백

년이면 어떤 생명이든지 인생을 마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고 만다면 역사의 발전은 어디서 찾을 것이며 혁명은 무엇을 기대고 일어설 것인가. 4.19가 미완의 혁명이 되었다 해서 없어지던가, 동학이 그렇던가 광주 민주화 항쟁이 그렇던가. 무릇 스러지는 모든 것들은 제 씨앗을 남겨 놓는다. 동국 백년은 이제 한 세대가 갔음을 말한다. 더 이상 거기에 기대를 걸지 않도록 하자. 그러나 고목이 자리면서 뿌려놓은 씨앗이 곳곳에서 자라고 있음을 본다. 한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올 때를 기다린다. 그래, 동국은 고목나무고 이미 꽃도 피울 수 있음을, 그리고 지나

간 세대의 영화이었음을 인정하자. 그러나 새로운 세대들이여 그대들은 성성하게 버티고 서 있는 고목이 품어준 씨앗으로 자라고 있음을 알자. 피어나는 것은 애처롭다. 그러나 장엄하다. 동국인의 모습을 보고 싶다. 애초로우나 장엄한 모습을...



**우 홍 식**  
자연과학대  
인전공학과 교수

## “21세기 우리의 절망과 희망이 교차한 98년”

### 동대신문이 뽑은 98 문화계 10대 뉴스

98년 문화계 역시 다사다난했다. 각계의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고 21세기형 문화담론이 떠올랐다. 이에 본 지면은 한해 문화계의 주 이슈들을 돌아보고 한국형 문화지형'을 화두로 문화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고민해보았다. 98문화계 10대 뉴스 선정에는 서울지역 외곽에 대를 비롯한 6개 신문사와 영상매체비평 고정필자들이 이문재 민족주의 연구소 소장, '포스트 모더니즘은 없다'의 지자 송주성씨, 인문과 사회연구소 이경현 연구위원 등이 도움을 주셨다.

편집자

### 대동제, 대학문화 자리 찾다

‘대학문화 자리찾기-모자이크만들기’라는 가치아래 지난 8월 13일부터 2일간 대동제가 진행되었다. 이번 대동제는 예년과 달리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특히 대학문화자리찾기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안치환, 꽃다지, 학내 노래패 등의 공연은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김준호·손상심 부부의 판소리 공연과 전통혼례 등의 행사도 마련돼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도 했으나, 반면 대동제의 주제가 ‘결단 후의 뒷처리’는 여전히 미흡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대학 또한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면서 ‘파파로’라는 의식이 광해해진 게 사실이다. 이후 ‘대학문화는 죽었는가?’라는 화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불상 앞 상실공연, 대학문화 자리찾기, 소강당 문화제 등의 다양한 행사로 높은 호응을 얻었던 98년 대동제는 의미있게 기억 될 것이다.

###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 움직임

얼마전 성폭력 사건으로 고려대와 성균관대 총학생회가 사회한 일은 대학내 성폭력 문제가 가지 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본교에서도 지난 학기 한 건의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건들이 공문화되지 못하고 음지에 숨어 있는 현실 속에서 여성단체와 각 학교 총학생회는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그러나 본교는 지난해 총학생회에 당선된 후보자들의 사퇴 이후 올해까지 총학생회가 건설되지 못해 이러한 움직임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학기에는 여성특별위원회(준) 또한 인준되지 않아서 재정, 공간 등 여러 부분에서 힘든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악 조건 속에서도 여성단체 및 다른 학교와의 연대 속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본교에서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98여성연대 한편을 벌였고, 현재는 이과대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을 논의 중이다. 대학내 보이지 않게 만연되어 있는 성폭력 문제, 이러한 상황에서 성폭력에 대한 개념규정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패러디 열풍

방송, 광고, 인터넷 등에서 패러디가 하나의 표현양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인터넷에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판지일보. 판지일보는 정치를 비롯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우리 사회의 치부를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1만7천여명이 접속할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또한 청와대를 패러디한 정치패러디 사이트 정치와, 보수선정주의, 치면이라고 일컬어지는 조선일보, 의 인터넷버전을 패러디한 디지털 스킵조산 등 인터넷에 많은 패러디 사이트들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방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방송의 주병진의 데이트라인 중 보고싶은 뉴스라는 코너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해 계도할 만한 내용을 가상으로 꾸며 보여준다. 패러디는 사회를 말한다 한다. '욕'하고 싶은 사회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패러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회에 불만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 스크린쿼터제 폐지 논란 큰 파장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5일간 열린 한미자유협정 실무협상에서 기존의 1백 46일이었던 한국영화의 무상영입수를 92일로 축소, 이를 단계적으로 줄여 폐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김대중대통령 집권 초기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이 40%가 될 때까지 스크린쿼터제를 고수하겠다는 정책과 상당히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제가 없어지면 세계시장의 8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미국독점영화 기업체들이 한국배급권을 장악해 우리영화는 숨길 공간을 잃게 된다며 이를 사수할때까지 투쟁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국내 스크린 쿼터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한국영화회하기 몸모구관대회'를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스크린쿼터제가 폐지 내지 축소되더라도 정부의 지원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투자협정에 장애가 되는 스크린쿼터제가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지원은 올해 영화진흥기금 1백 63억원에서 99년도에는 1백억원으로 더 추가할 뿐 이는 미국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스크린쿼터제폐지가 영화를 문화가 아닌 상품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 남북 문화교류, 통일의 밑거름

제 1회 윤이상 통일음악회, 북한 영화 상영 등 을 한해는 남북 문화 교류가 활발히 진행된 해이다. '인중군, 이동백문을 쓰다', '밤격정'이 공중파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며 이어서, 제 1회 서울영화제에서 또한 이준열사를 그린 '돌아오지 않는 밀사', 일제시대의 슬픈 가족사와 가족애를 담고 있는 '꽃피는 처녀' 등을 상영했다. 그리고 남북한 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러낸 제 1회 '윤이상 통일음악회' 또한 남북 문화 교류에 큰 획을 그은 일로 정치와 이념을 뛰어 넘은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관련 서적이나 그림 전시회 등 북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열려 있다. 앞으로 이러한 남북한의 적극적인 문화교류가 통일의 밑거름이 되어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의 문이 열릴 수 있을 기대해본다.

지난 12월 3일로 치욕적인 IMF 1년을 맞으면서, 경제논리에 가장 먼저 고개숙여야 했던 우리의 문화계는 대책 없는 전면적 일본문화개방과 지금의 시기 스크린쿼터제란 등을 통해 가장 침예한 모습으로 외화 된다. 일본문화개방의 경우,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미명하에 전면개방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 스크린쿼터 역시 미국측의 30일선과 외교통상부측의 90일선이 줄다리를 하고있다. 현재 스크린쿼터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한국영화 시장 규모는 사실상 할리우드 대항영화 두 편 제작에 드는 비용 정도인 연간 약 6백억원이다. 이는 외화외와 방화를 합친 전체시장의 25%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OECD 가입국 중 첫 투자협정 체결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을 타겟으로 '영화도 협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이로써 '문화분야의 예외'를 주장하는 프랑스 등의 나라들의 저항논리를 무력화하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결국 문화분야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영화계는 무엇보다 협상 대표들이 영화를 문화가 아닌 상품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언간 약 6백억원이다. 이는 외화외와 방화를 합친 전체시장의 25%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OECD 가입국 중 첫 투자협정 체결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을 타겟으로 '영화도 협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이로써 '문화분야의 예외'를 주장하는 프랑스 등의 나라들의 저항논리를 무력화하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결국 문화분야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영상매체비평

- TV편  
애드버킷

"애드버킷은 고전적 변호사물이라기보다는 활극적 요소를 많이 강조한 드라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 흔히 대중사회라고 한다. 그러나 이 대중사회를 움직이는 것

은 대중이 아니다. 사회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의 체계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전문가들의 권력이 더욱 더 강해진다. 이런 점에서 대중사회는 전문가사회라고 할 수 있겠다. 전문가에 대한 일반 대중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기능적인 면에서, 그들은 사회의 원활한 작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선망의 대상이 된다. 물론 여기에는 경제적 이유도 있다. 한편, 정치적 면에서, 그들은 잠막 뒤에 숨은 권력자로서 비판과 우려의 대상이 된다. 물론 여기에 시기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전문가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물론 이 경우의 전문가란 특정 부류의 직업

으로 한정된다. 사실은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다면 누구라도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보통 전문가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어법 자체에 대해 어떤 사회적인 차별과 인정의 기준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가 바뀔에 따라 전문가로 통하는 직업의 종류도 변한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도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집단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역시 의사와 변호사를 들 수 있다. 그래서일까? 최근에 문화방송에서는 각각 의사와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두 편의 드라마를 방영하기 시작했다. 이 두 편의 드라마는 의사와 변호사 사회를 드라마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전문가 드라마'라고 부를 만하다. 이 중에서 변호사를 다루고 있는 애드버킷은 최근의 논란과 관련하여 재미를 더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로 보자면, 애드버킷은 고전적인 변호사물이라기 보다는 활극적 요소를 많이 강조한 드라마다.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폭력장면이 빈번하고, '정의의 편'에 선 신출내기 변호사가 상대해야 하는 세력은 노골적인 폭력 그 자체로 비쳐진다. 대중의 카타르시스를 위한 극적 구성이었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순쉬운 선악의 대비라는 생각이 든다. 애드버킷과 연관된 최근의 논란이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문가들의 권력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로 흔히 거론되곤 하는 의료비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올로부터 계속된 변호사 비리를 둘러싼 논란이다. 이 논란은 변호사에 대한 부가세 부과방식에 대한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조직적인 저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은 이를테면 신호등이다. 그 신호체계를 관리하는 자가 사리사욕에 급급하면 사회는 마비되고 만다. 따라서 비합리적인 변호사란 사회의 공적이다. 애드버킷이 이 점을 잘 보여주고 바란다. 홍성태 문화과학 편집위원

# 과제 한국형 문화지형 만들기

## ... 주체·전통성 담보한 한 걸음 준비해야

### 대학내 문화의 활성화

올해는 동아리를 비롯, 각 과나 소모임 등에서 활발한 문화 공연이 진행되었다. 특히 일본문화 개방을 앞두고, 동아리나 소모임 등에서 일본 영화를 상영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스스로 준비하려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많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경쟁대에서는 영화를 개최해 매주 여성, 노동,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보였으며, 또한 동국인의 자유로운 공연활동을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된 캐주얼에서 여러 동아리들이 참가해 끼를 발산하는 등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기도 했다. 그리고 문예패들 또한 정기공연 외에 집회 등에서 사생활을 마련해 학생들의 주의를 끌기도 했다.

대학내 이러한 작은 물결들이 모여 대학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앞으로 더욱 추구하고 싶다.



영화제 같은 진보적 문화기획이 어려움 속에서도 진행됐으며 상업화된 문화상품들을 경계하기 위한 작은 시민운동들도 눈에 띄게 되었다. 어쩌면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지점, 실망과 기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98년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기에 이제 내딛는 한발짝에 따라 21세기를 향하는 한국의 문화는 그 행로를 달리할 수 있다. 이즈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한국형 문화진흥'이라는 상층구조를 이룩하는 방법이다. 항상 반복되어온 '문제도 알고 비판도 하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탈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국형 문화진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와 정치를 움직여 세우려는 작업을 진행한다면 문화를 움직여 세우려는 일도 진행되어야 한다. 이 움직임을 위한 정의를 한국형 문화진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정체성과 주체성 그리고 민족의 전통성을 담보한 문화진흥을 위해 한해 나의 문화영역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 운동의 첫 내일일 것이다. 최진 기자

### 일본문화 개방 대책 마련 절실

정부는 문화의 날인 지난 10월 20일,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연 자리에서 일본영화와 비디오, 출판 문화를 즉시 개방하기로 결정. 일본문화에 50여년간 걸어두었던 빗장을 풀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우선 과거 식민사관에 억눌려 왔던 감정을 씻어내고 새롭게 양국관계를 모색한다는 점과 그동안 암거래 해오던 음란, 저질문화의 유입을 막고 나아가 우리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내 일본문화개방에 대비해 일본은 5년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해왔는데 비해 정부가 단기간에 내놓은 문화육성책은 허술한 점이 많다. 또한 국내문화외의 충동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 정서상의 이질감 등과 함락적이고, 저질문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정부의 신중한 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

### 타이타닉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지난 3월 국내에서는 할리우드 영화 '타이타닉'의 관람을 놓고 애국주의나 국수주의나 PC통신의 토론방에서는 열띤 논쟁이 오고 갔었다.

IMF 경제위기에 온 국민이 금모으기 행사로 조성한 10억원이 국내 타이타닉의 흥행수입과 겨루는 액수라는 것 때문이다. 실제로 타이타닉은 미국과 영국, 일본을 비롯해 상영국마다 흥행 1위를 기록했으며, 이런 인기들이는 한국에서도 예외가 없어서 개봉 3일만에 13만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매 상영매마다 객석 점유율은 거의 1백%에 가까웠다. 더욱이 일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디카프리오의 "한국사람과 여성은 지지분하며, 한국관객이 타이타닉을 봐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등의 한국비하 발언은 이러한 논쟁을 부추기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애국심만을 우선 순위로 내세우는 시대는 지난지 오래며 국내의 올바른 소비행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미국내 한 영화기업이 책정한 한해 광고예산이 한국영화의 평균제작비에 가깝다는 현상을 볼때 우리것에 대한 맹목적인 애국심을 강조하기보다는 국내 문화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 각종 영화제 풍성

올 해는 안경영화제, 퀴어영화제 등의 저예산 독립영화제를 비롯해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들이 풍성했다. 아시아 영화의 새로운 제작물들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 각국이 자국의 영화산업 현황과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 좋은 자리로 평가받았으며, 특히 국제 일본문화 개방에 앞서 일본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부산에 이어 국제영화제라 할 수 있는 제2회 국제 부산국제관타스틱영화제는 '사랑·환상·모험'을 주제로 오는 10일부터 6일간 중동신도시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의 예산남비와 경제사정을 감안해 이번에는 이벤트를 가급적 패배하고 국내의 '80여명의 순수영화 중심으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일부터 6일간 본교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회 '인권영화제는 올해로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밖에도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퀴어영화제는 동성애를 다룬 영화들을 한자리에 모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독립영화가 상영되기까지는 여러 법적 장애물이 존재한다. 이에 독립영화를 준비하는 단체들은 공동대응책을 찾기로 합의, 독립영화제협의체를 결성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일치를 다져나가고 있다.

### 박노해·황석영씨 특별사면

98년도에는 인권운동가 서준식씨의 석방과 70, 80년대 민족민주투쟁가였던 황석영씨를 비롯해 민중시인이자 노동운동가였던 박노해씨가 오랫동안의 수감생활을 해오다 특별사면 돼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89년 3월 방북이후 5년간의 망명생활, 그이후 감옥에 수감된지 6년만에 다시 돌아온 황석영씨는 민족문학과 리얼리즘 소설에 새로운 정열을 연 장본인이기도 하다. 까다로운 검열로 창작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그는 이제 21세기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문장과 문체로 시대에 부응하는 창작작업을 준비하고 있어 각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8.15 특사로 풀려난 박노해씨는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연맹의 중앙위원으로 활동을 해오다 91년 3월 안기부에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 그는 각종 사회단체와 대학강좌서 자신의 노동운동과 현재의 삶 등을 강연하면서 당분간은 현재 자신의 삶에 친근해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레드헌터)를 대학가에 상영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올 2월 법원의 보석으로 풀려난 서준식씨(인권운동사립대표 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는 현재 정부의 사면결정을 거부하고 인권영화제를 개최,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약업에 대한 비폭력 불복종을 주장하고 있다.

### 이만희 교수가 권하는 책



### 사랑의 기술

실천적 휴머니스트, 뛰어난 정신분석학자, 사회개혁을 주창한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리히 프롬의 사랑법에 관한 책.

이 책에서 프롬은 '사랑은 기술인가?'라는 물음을 통해서 사랑에도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젊은 날 누구나 한번은 겪게 되는 사랑의 실패와 아픔도 테크닉이 부족하기 때문일다. 사랑할 줄 아는 법을 점차 상실해 가는 현대인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잘 전달해 줄것입니다" 해원출판사, 정가 4천 5백원.



### 소유냐 삶이나

에리히 프롬이 존재양식과 소유양식에 대한 깊은 사색과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인간과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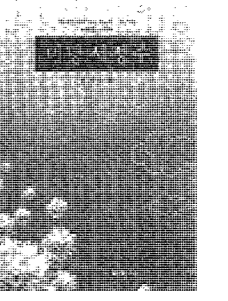
이만희 교수는 '사랑을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 존재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이 인상적으로 남아 대학생들에게도 권하고 싶다고 전한다. 인간의 삶을 소유와 존재의 양식으로 나눠 생활과 관련된 사실들까지 파헤치고 분석해 소비의 소유에 눈이 멀어 존재의 위기를 맞은 현대인들에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구원 문제를 제기한다. 기린원, 정가 4천 5백원.



### 미당 서정주

건조체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고 건조하고 모던한 생각들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사회가 메달라가고 있다는 현상중의 하나가 아닐까?

"메마른 오늘날 미당 서정주의 시에서 느껴지는 깊고 구성된 맛이 더욱 정결해 다가옵니다"라며 알고 가버은 오늘날의 건조한 문화보다 서정주의 시가 빛나는 것은 높은 작품성과 시 속에 배인 민족적 정서 탓일 것이라고 이 책을 추천하고 있다.



태학사, 정가 1만 3천원.

### 메아리

### 동상이몽

▲한참 학내 선거가 진행되던 지난달 말 한 권의 책자가 학내에 뿌려졌다. 30대 총재의원회 산하 31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선거공동정책 자료집이 바로 그것이었다. 자료집은 총재의원회와 졸업준비위원회 그리고 총학생회 등 학생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줄 차기 학생회 운영진들의 당찬 포부와 결의가 담겨져 있었다. 그러나 40쪽을 메운 무수한 낱말들과 수십장의 사진

속에서 현재 학내 상황을 이리저리하게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의 등록금으로 비자금 500억원. 제3캠퍼스 불교종합병원의 재정확보안 공개하라', '날치기 재단낙원 총장선출 전면무효'라는 플래카드가 전면에 드러나는 이 사진은 학생들의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한 때의 시위대를 이루어 감의심을 박치고 나오는 듯한 모습이었다.

자료집 24페이지, 현재는 당선자가 된 김호중, 성나현 총학생회 후보자의 2기 발동국 구교운동의 과제 라는 주제에 실린 이 사진은 학생들의 모습과 플래카드가 적절히 드러나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사진에 드러난 동국관 2층과 3층 창문을 빼곡히 메운 학생들은 자신의 머리위로 내려온 플래카드의 내용을 얼마나 신중히 검토해 보았을까? 그러나 사진촬영자의 의도가 어떠했든 그 플래카드의 내용과 학생들의 행위는

전혀 별개의 것이었다. 재단의 총장낙점이 있는 10월 22일 이후 학내에서 가장 많은 학우를 동원했던 행사는 11월 4일 KBS2의 캠퍼스 영상가요 녹화였다. 학생들은 녹화현장을 보기위해 창문에 걸터앉거나 계시관 위에 올라가는 위험을 무릅썼던 것이다. ▲학생회 선거를 비롯해 학생회가 준비하는 행사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학교에 큰일이 일어났음에도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리 신경

쓰지 않는 학생들이지만 방송의 상업성을 드러내는 오락프로그램 앞에서는 모던걸 내뿜고치고 위험까지 무릅쓴다. 학생회와 학생의 동상이몽이 어찌 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을 이제 인정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하는 작은 불안감 속에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다'는 지난친 운정주의를 넘어 시시비비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한다는 원칙을 되뇌여본다. 최진 문화부장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TEL : 2603491·2 / (0561) 7702057·8 FAX : 2791270 PC ID : dgpress

소나기

학기말 현상



△학사일정은 뭐 때문에 정했을까. 이렇게 일찍 종강할까... 이번 학기엔 수업반, 휴강반인 것 같다. 등록금이 정말 아깝다. △설령 ~ 설령 ~. 1학기 때보다 도서관에 애들이 많이 줄었다! △점든 학교를 떠나야 하더니 늙은이의 마음은 아쉽기 그지 없군. △수업 몇 번 안들어 왔는데 벌써 시험! 겁나는 군. △참 아쉽다. 제대로 해놓는 것 없이 또 한 학기가 지나갔으니... △학기초 열심히 공부하리라 했던 나의

다짐은 학기말 열심히 놀러 다니자! △학기초에는 성적 장학금을 목표로. 지금은 F 안뜨면 다행이다! △조계종 사태... 동국대 사태... 學期末 현상인지 世紀末 현상인지 알뜰 잡돼야 할텐데. △평소엔 텅텅비는 도서관. 이렇게 자리가 없을 줄이야! △학기말이었으면 좋겠다. 기다리던 겨울방학 즐겁게 맞았지만 말도 안되는 IMF 졸업이러나. △내가 중도에 오다니 학기말인가보다. △괜히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모여서 잠을 잔다. △집에 가고 싶다. △나도 드디어 새내기에서 현내기로 되는구나! 슬프다. △선영이는 학교를 나오지 않는다. 난 매일 혼자 듣는다. △학기말현상 = "死" 學年現象 △동기하나 잘못뒤서 노트필기 빌려다 거저됐다. △갑자기 안하던 공부한다고 되냐? △누가 내학점 책임지노 △세기말 현상보다 더 무서운 학기말 현상(?) 돌아오자? △2학기는 왜 이리 짝나고요? 어제 개강한 것 같은데 벌써 방학!

자성의 변

잘못된 교육 반성 및 숙죄

배움과 가르침의 외길을 걷다보니 어느 사이 이 교단을 내려오게 되었으니 한 번 되돌아 보는 반성이 없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나라 살림이 어려워 '국제통화기금(IMF)'의 도움 속에 버티고 있다. 빚으로 나라살림이 이루어진다니, 그간의 교육이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잘못된 책임의 몫을 나도 저야 하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교육에서 양성된 '전문인'은 자신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스스로 해치고 있다. 지나친 전문적 이론이 앞서다 보니 부분적 진전은 있으나 전체의 통합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 '개혁'이란 '개선'에 무게가 있지 '혁파'에 비중이 더 있지 않을터인데, 밑뿌리까지 바꾸는 것이 개혁으로 오도되고 있다. 교육부는 '장려'라는 미명 아래 사탕발림처럼 운용되고 있는 그 특별기금을 더 이상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획일적 개혁이 어찌 창의적인 자율 교육인가. 요즘의 청장년을 염려스러운 시선으로 보는데, 그것도 교육이 잘못된 데서 오는 결과이다. 70년대에 어느 재벌이 '왔다감'을 만들어 재미 보았다. 이 '왔다'가 무엇인가. '한탕 왔다' '한탕 했다'의 한탕주의의 도박심리가 아닌가. 어린이의 기호식품에 '왔다'의 한탕주의를 심어 주었다. 언어의 정신이 이렇게 중요한테 국어학계는 잠잠하다. 심정의 '효'는 인당수의 죽음으로 이룩된 것이 아니다. 맹인 잔치를 벌려 끝내 아

버지의 눈을 떠운 이 '눈 띄움'이 '효의 완성'인데, 심정의 인당수의 죽음은 효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70.80년대 분신사살을 당 유익한 것으로 여기는 오류도 보였다. '제 자랑은 등신'이라 하여 겸양의 방편으로 쓰던 말이 '자가 PR'이라는 말 때문에 등신 아닌 잘난 놈의 행세를 하니 겸손의 미덕이 사라진지 오래다. 우리사회의 교육은 전문적 지적 포장으로 당해 전문분야를 손상시키고 있다. 경제는 경제인이 정치는 정치인이...국제통화기금(IMF)의 도움을 벗기 위해 지나친 거품을 제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름 있는 분은 이름을 더 가지려 하니, 이 더 가집은 거품이 아닌지 모르겠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요즘 '박사 학위를 받으셨다'기에 축의를 보내면서도, 이름 위에 이름을 더 얹으려는 더가집이 아닌가 하여 조심스러이 충언도 드려 본다. 재벌은 돈육심 높으신 분은 명예욕심이 가시지 않고서 구조조정이 되겠는가. 우리들의 교육열은 마치 못배움의 '한풀이'같은 극성이 격정스러운데, 높은 분이 학위까지 탐내면, 이 한풀이의 교육열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높은 분부터 겸손해지고 지식인의 지적 오만도 이제는 삼가자. 알량한 지식의 '독선'이 제 전공을 해친다는 겸허한 반성을 하자. 아무튼 이 모든 잘못을 자성을 넘어서 숙죄하는 심정으로 교단을 내려갑니다. 이종천(문과대 국어국문학부 명예교수)



동약광장

다향관 학생·보리수 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te and Menu items. Includes items like 오징어까스(1300), 콩나물밥(1200), 산채비빔밥(2000), 생선까스(2500), 탕수육백반(1500), 고구마비빔밥(1300), 낙지볶음(2500), 김치볶음밥(2000), 짜장밥(1200), 어묵떡볶음(1300), 불고기비빔밥(3000), 잡채밥(2000), 제육볶음(1500), 북어찜백반(1300), 햄이채볶음(2000), 돈가스(2500), 비빔밥(1300), 왕송이볶음밥(1300), 모듬떡볶음(2000), 생선초밥(3000). (단위: 원)

동국관 교직원·학생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te and Menu items. Includes items like 대구탕(3000), 돼지갈비구이(3500), 비추까스(1500), 부대찌개(1300), 콩나물국밥(2800), 조기구이(3000), 설렁탕(1300), 카레볶음밥(1300), 홍합탕(2800), 정식(3200), 양념통닭(1500), 콩비지찌개(1200), 도가니탕(4200), 골뱅이무침(3000), 소고기태백반(1300), 참치우거지구이(1300), 굴전골(3200), 영양술밥(3000), 콩나물무밥(1200), 돈육찌개(1300). (단위: 원)

목격길 축하합니다 △15일 장규가 머리를 깎습니다. 군입대 축하. -히하- △97수교과 새로운 과대 이우성 축하한다. 임은희, 박민정 수고했다. -친구s- △훈진, 동민 생일 축하해. -행정학회- △정실(여자아님)! 입대를 뒤늦게나마 축하한다. -민방위- △정금이 누나 생일 축하해. -자취생 일동- △김정근 ROTC 된 것 축하한다. 생일 더 축하해. -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역교과 주영(95)아! 수고 많이했다. 내년엔 더 멋진사람 준비하길... -사랑하는 친구100- △불활학회 사람들 수고 많았습니다. -98임경-

수배양심수 '민주와 인권' 보루

한창 물난리로 세상이 어수선할 때 시작 한 농성이 녀 달을 넘어서고 있다. 여름에서 겨울까지의 매출 수도, 물리설 수도 없었던 수배해제 농성투쟁, 정권도 바뀌고 했으니 당연히 수배해제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아직도 수배는 풀리지 않고 있다. 크게 어리석은 것은 크게 현명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 너무나 당연스레 풀려야 할 정치적 수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정치권, 법무부, 검찰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 수배의 부당성을 알리고 해제를 요구해왔다. 때로 수만명에 이르는 서명운동을, 수백명에 이르는 탄원서를 그리고 수차례의 집회와 문화제, 각종 선전물과 신문발행 등등. 지난 녀 달동안 하루도 쉬없이 부모님과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계신 사회단체 어르신들과 함께 뛰어다녔다. 비록 몸은 조계사안에 갇혀있었지만 전화와 팩스를 통해, 때로는 사람들을 보내 일을 진행해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부당한 수배가 풀려야한다며 두 팔을 걷고 '수배자 가족협의회(수가협)'를 결성하기도 했다. 우리의 간절했던 지난

학생회 '주인의식'으로 되찾자

한동안 온방골을 시끄럽게 하던 선거가 학우들의 여전한 무관심 속에서 저조한 투표율을 끝이 났다 각종 유인물과 선거벽보도 이제 깨끗이 정리되고 학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 졌다. 이제 당선자들은 각자가 제시한 공약을 바탕으로 내년 사업을 준비하느라 분주할 것이며 또한 다음학기 시작전까지 매우 중요한 시간들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알차게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노력도 그들의 공약도 아닌 온방골을 구성하고 있는 학우들 즉 우리들의 '관심'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몇년 전 부터 계속해서 학생회는 학우들의 무관심 속에서 방대를 받아왔었고 학우들 또한 그러한 무관심 속에서 지냈던 것이 사실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학우들은 점점 개인사 밖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지나치리 만큼 무관심해졌다. 예를 들어 이번 학기에 있었던 몇몇과의 학부제 투쟁이 그들만의 학과이기주의로

농성투쟁이 단지 우리 몇몇의 자유를 되찾는 일만은 아니었다. 이 땅에 아직도 정치적 탄압으로 인한 수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싶었다. 양심수와 수배자들의 문제를 풀지 않고 민주발전이니 인권이니 하는 소리가 얼마나 거짓에 찬 이야기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50년이 되는 날이었다. 다가올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민주와 인권의 최대 가해자이자 적은 국가보안법이다. 이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고, 잡혀가 고문받고 감옥살이를 해야했던가? 우리 또한 이 악법 때문에 수배 상태에 놓여있다. 더 이상 물리설 곳이 없다는 절절함으로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 그리고 명동성당에서 준비해서 약서 철회를 외치는 학생들, 수배에서 감옥으로 다시 군대로 끌려가야 하는 청년 양심수들과 함께 5일부터 목숨을 건 무기한 공동단식에 들어갔다. '양심수 문제 완전 해결,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를 가지고.

잊지 말 일이다. '하나가 자유롭지 못하면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유병문(불교대 불교학과, 96년 총학생회장)

비쳐졌고 얼마전의 선거또한 극심한 무관심 속에서 치러졌다. 모든 것들이 학우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인이 없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왜 자신이 주인되는 생각이 없느냐"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이 기억난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한탄과 푸념만이 온방골에 존재해서는 안될 것이며 패배의식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학우들에게 부탁하는 바이다. 자기 겉으로 조금만 눈을 돌리라고. 그 조그만 애정을 바탕으로 99학년도 한해 온방골의 모습은 점차 발전적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꽃밭의 꽃을 황폐화 시키는 건 황폐화 시키려는 악의적 모습이 아니라 단지 그 꽃밭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던 그 꽃밭은 잡초가 자라 풀밭이 될 뿐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강한 질책과 평가를 학생회로 날리자.

그럼 좀 더 활기찬 온방골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유문식 (인문과학대 한국어문학부)



동 달 이 김 경 일 (21)

욱! 안되겠다. 공부해야지! 도시락

앗, 전부다 4학년!

미안하구나. 취업준비때문에 우리가 더 급해!

등문칼럼



류인식 (가리빈산업 대표·임학 86출)

시련을 헤치고 나아갈 동약인에게

사람은 흔히 아지랑이 피던 봄날을 그때는 알지 못하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는가 보다. 이제 생각해 보니, 십여 년의 세월 저편에 내정춘의 봄날은 아직도 아지랑이로 빛나고 있지 않는가. 늦은 도서관의 찬란하던 불빛, 초파일종의 푸른 나뭇잎과 바람 그리고 출렁이는 연등(蓮燈) 행렬, 동대문야구장의 합성, 또 아버지의 낡은 세이코 시계와 외상술. 이제는 모두 하나의 추억으로만 남아 있는 70년대와 80년대의 "아름다운 시절" 이야기이지만, 음식 솜씨 좋았던 진도 아주머니의 하숙집과 사범대학 미스 "푸른 하늘"의 소식이 그리워지기도 한다. 강의실을 떠나 사회인이 되어 앞만보고 달려왔던 지금, 돌이켜보면 지나치게 강박관념이 틀 정도로 잘해야 한다고 믿으며 뛰었던 직장 생활, 그리고 내가 가야할 길이라고 뜻을 세워 만든 가리빈산업이라는 회사. 이제 사십이 된 나의 현재를 정리해 본다면, 지금 경제망국(經濟亡國)의 폐허 위에서 나는 무엇을 이루었나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 경제난국 속에서 계층과 세대구분없이 모든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특히 지금 학교를 졸업하는 젊은 후배들의 심정을 헤아리기에 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4년 혹은 6.7년을 준비한 사회로의 출발이 완벽하게 봉쇄되고 졸업이 곧 실업이 되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이 겨울은 더욱 스산 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슈 이야기 속의 곱장은 토끼처럼 모두 죽자고 연못으로 줄지어 갈수만은 없지 않는가. 자기가 처한 입장이 제일 참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직장만 바라보고 열심히 20여년을 뛰어오다 실직된 50대 가장, 마흔이 다 된 자식을 염려에 칠십 노구에도 편치 못한 우리 부모들의 입장은 어떠하겠는가. 젊음이 진정 가치로운 것은 어떤 환경과 조건을 무시할수 있는 길 들여지지 않은 야생(野生)의 에너지 때문이 아닐까.

향후 여러분들은 적어도 동약의 젊음이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사회 생활을 통해 느낄수 있을 것이다. 동국의 역사는 찬란하다. 비록 나 하나는 작은 돌맹이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전체 역사의 탐속에서 는 찬연히 빛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훌륭한 전통의 후예 들이다. 또한, 동국의 가르침은 위대하다. 이것은 학교를 떠나보면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동약에서 여러분은 법람하는 가치 속에서도 변치 않아 될 인간의 근본을 배웠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약은 서울 한복판의 언덕 위에 자리잡고 있다. 서울을 둘러싼 북한산, 도봉산, 인왕산, 관악산 그 어디가 맞보이지 않는가. 아침 저녁 오르내린 동약의 언덕은 항상 번두리의 평지를 걸었던 그 어떤 경쟁자보다도 담대한 마음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길러 주었음을 인식하기 바란다.

이 겨울에, 사회로 향해야 할 젊은 후배들은 각처에서 뛰고 있는 여러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되새기자. 동국의 정신은 결코 안으로 내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적극적으로 승부하는 진정한 용기이며, 지금 우리 사회 면면에서 숨쉬고 있는 행동하는 생명의 정신이라는 것을...

열심히 합시다

△수레비나 10주년 Family 공연 축하드려요. -미모의 여학생- △12월 7일은 한국어문학부의 이병 미영님의 생일입니다. 모두축하해 주세요. -너의 친구가- △상설·재영 선배님 선화·양심 선배님 당선 축하드려요. -그날이면 귀영들이들- △지희형 99학년도 국어국문학과 학회장 축하드리구요. 열심히 하시구요. △선희형! 총여 당선되시길 축하드려요. -시림 이쁜이들-

알립니다

△11월 30일자 신문의 기사중에서 시정 및 사과를 요구 합니다. 그리고... 란의 예수님 운운 한것에 대해 사과문을 요구합니다.

다. 동국대는 종합학교입니다. -어느 동국인-

수고하셨습니다

△조경학우 여러분 학회장 이하 모두 수고 했습니다. 다음해에도 보다 열심히 하길... -흔- △교직원회회 17기, 18기 선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9기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동국문화회 여러분. 그리고 시선 동인님들 시화전 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요. 우리모두. -동국문화회 사-

그리고...

△우리의 친구 경상98 박기태군이 12월 15일 군대에 갑니다. 잘 갔다가 오길... -고적 연구회- △주연아! 빨리 나아라. -래- △12월7일 태훈 선배 군 입대! 고생 마니 하시구요. 내년엔 휴가때 멋진 얼굴로 봐요. -17기 일동- △12월 14일 입대하는 경찰이에게 행운을 바라며... -소년비 일동-